

1950 ~ 90년대 산업디자인사

2024-2 산업디자인사 보고서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박준호, 장효정, 조상훈

1. 1950년대 소비사회의 개막

1.1. 시대적 배경

미국과 소련의 냉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소련의 붕괴 전까지,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두고 대립하며 세계를 양분했던 시기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주축으로서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 했고, 이는 군사·정치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내부에서는 1950년부터 1954년 사이 매카시즘이 주도한 극우 반공주의 열풍이 강하게 일어나 공산주의자 색출과 탄압이 이어졌으며, 할리우드와 학계도 이에 영향을 받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미국은 또한 국제적으로 군사력 증강과 동맹 강화로 냉전 체제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다. 냉전은 단순한 군사적 대립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이념 갈등으로,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 시대적 흐름이었다.



마셜 플랜

미국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 트루먼 행정부 시기의 미국은 전세계적인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에 힘쓰며 서방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미국이 주도하여 진행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유럽 자유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과 원조 기획이다. 그것은 제 2세계 공산권의 세력이 유럽에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은 빠르게 재건되었고, 심지어 세계대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 결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은 냉전 기간 동안 굳건하게 미국 편에 섰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추축국 역시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이들도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1.2. 사회문화적, 기술경제적 배경

소비 문화

1950년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호황을 누리며 소비문화가 급격히 발전하였다. 중산층 확대와 함께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텔레비전의 대중화는 광고 산업 성장을 이끌며 소비문화를 더욱 강화시켰다.

1950년대는 광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심리 연구와 광고 기법이 크게 발전한 시기로,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무의식적 욕망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니스트 디히터(Ernest Dichter)와 같은 학자들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광고에 도입해 동기 조사를 발전시켰다.

팝 문화의 확산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호황과 함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상품들이 대량 생산·소비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유행의 잦은 변화가 동반되게 된다. 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유행에 편승하여 가볍게 소비되고 쉽게 잊혀진다는 것이다.

우주 경쟁

우주 경쟁의 시작은 1953년 소련 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서방국가들을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미국에 이어 핵 개발에 성공한 후, 이를 미국에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1953년 소련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미국도 1955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다. 1957년 소련은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7의 발사를 성공시키고, 같은 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시키며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우주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후 유인 우주 비행, 그리고 유인 달 탐사, 행성 탐사 등의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경쟁이 이어졌다.

한편, 우주 경쟁은 과학기술, 특히 항공기술과 통신기술의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 우주 경쟁의 효과는 로켓, 물리학, 천문학과 그보다 넓은 범위까지 이르고 있어, 우주 시대의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1.3. 1950년대 주류 양식

‘미국식 생활 방식’의 확립

1930년대 많은 바우하우스 인사들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활동하면서 유럽의 모던 건축과 디자인은 미국 시장에 맞는 국제적 양식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의 경제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고



쉐보레, 벨에어(1957)

마케팅과 광고에 힘입어 제품들은 점점 더 빠르게 바뀌었다. 특히, 1930년대에 유행하던 스트림라인 스타일링이 전쟁 이후 또다시 흥행하며, 자동차에는 비행기 꼬리 날개 등의 장식이 생겨나고 스트림라인으로 치장된 제품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스트림라인의 진공청소기, 세탁기, 토스터, 믹서, 다리미 등의 가전제품들이 널리 퍼져나갔다.

레이먼드 로위

파리 출신의 레이먼드 로위(Raymond Loewy)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초기에는 쇼윈도우 장식미술가로 활동하다가,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였다. 그의 작업은 장식적인 부분이 많아서 화려한 스타일리스트라는 비난이 있었던 반면, 그의 화려한 스타일링은 미국의 고도 성장기를 상징하고 미국 사회의 윤택함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그의 디자인은 “미국식 생활 방식(The American Way of Life)”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20세기 미국 산업 디자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로위의 디자인은 유럽의 모던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제품의

외관(스타일링)을 통해 사람들이 기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는 아름다움이란 단순함에서 오는 것이지만 너무 건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울름조형대학의 견해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레이몬드 로위 작업물

2. 68운동과 기능주의 비판운동 및 래디컬 디자인

2.1. 시대적 배경

1960년대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였다. 동시에 마셜플랜에 힘입어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서유럽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경제 침체로 인해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사회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사회로 진입할 공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68운동이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촉발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젊은 세대의 부모세대는 전쟁을 겪으며 거친 환경속에서 '불평하는 대신'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동시에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세대였다. 이처럼 세대 간의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였기 때문에, 자식세대들이 저항하는 이유를 부모세대는 정확히 진단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기성세대들과 신세대들의 갈등은 68운동이 권위에 대한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서구사회는 성차별, 인종차별, 가부장주의 등 기독교적 가치관과 이성, 합리 등에 기반한 권위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68운동은 이러한 기존의 질서들을 타파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2.2. 사회문화적, 기술경제적 배경

미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 말콤 엑스(Malcolm X) 등을 중심으로 더욱 반인종차별 운동이 격화되었다. 같은 시기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들 역시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펼쳤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T. Adorno), 마르쿠제(H. Marcuse) 등은 (미국식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인간을 목적으로서 보지 않고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략시킨다고 말하며, 더 원활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인간이 실제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원하도록 유도하고, 소비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 등을 과시하게 하여 소비에 따라 인간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이것이 곧 권위주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존 서양사회를 지배하던 이성이 지배계층에 의하여 왜곡되어 사회적 억압의 도구로 전략했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프랑스 구조주의(structuralism) 학자들, 특히 알튀세르는 대다수의 인간이 모든 상황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사고한다고 말하며, 학교 등의 기관은 교육을 통하여 국가나 기업이 원하는 이데올로기에 잘 순응하는 사람을 양성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역시 결국에는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기계화할 수 있음을 비판하며, 구좌파와 신좌파가 분리되는 지점을 이념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푸코(M. Foucault)는 ‘담론’이라는 것을 한 시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성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담론에 기반하여 세상을 바라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는 이러한 담론이 무한히 증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금기를 설정하고 금기를 어기는 사람들을 배척하여 담론이 일정한 영역 내에 머무르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을 이용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차후 후기 구조주의로 발전하며, 근대 철학이 선악의 구분이나 진리의 추구에 집착했음을 반성하며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원주의(pluralism)에 영향을 주었다.

그 외에도 사르트르(J. P. Sartre)의 “앙가주망(engagement)”, 마르쿠제의 “위대한 거부(The Great Refusal)” 등 지식인들의 실천과 행동을 촉구하는 주장들 역시 대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운동에 대한 열의를 불어넣는데 일조하였다.

2.3. 68운동과 디자인

미국에서는 1964년 UC 버클리(Berkeley)의 학생인 마리오 새비오(Mario Savio) 등을 주축으로, 학교가 수익에 눈이 멀어 기계화되어가며 학생들을 자본주의체제의 부품으로 만들어낸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와 대립하며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유럽에서는 1968년 5월, 낭테르 대학교(Université Paris Nanterre) 와 소르본 대학교(Sorbonne Université)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폭력사태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5월 10일 밤에는 소르본 대학의 재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쌓고 경찰과 대치하는 '바리케이드의 밤' 이 벌어졌다. 이후 5~6월에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이어졌다.

그리고 성 해방 운동, 남녀평등 운동, 구좌파와 신좌파의 단절, 대학교 개혁 운동, 서구식 세속주의의 정착, 아방가르드(avant garde)와 사이키델릭(psychedellic) 예술 사조, 환경주의의 정치화, 포스트모던 철학 등이 68운동의 영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인간이 소비를 위한 부품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과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은 기능주의 비판운동으로도 번져나갔다. 기능주의는 점차 물리적 편리함과 생산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고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중점을 두는 등, 사용자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증대의) 기능주의로의 색채가 강해졌다. 그 결과, 기능주의는 생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점철되었다. 그리고 기능주의에 입각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야기시킨 환경문제 또한 강하게 질타 받았다. 68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주의 디자인은 대대적으로 비판받았다.

여기서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 등의 디자이너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 디자인을 통하여 기능주의의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이탈리아의 래디컬 디자인 운동에서부터 그룹 알키미아(group Alchimia)를 거쳐 그룹 뎀피스(group Memphis)로 이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에서는 통속적 기능주의에 대항하여, 새로운 미적 가치와 다양성 및 상징성 등을 내세우는 디자인 실험들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적, 상징적 요소들이 기능적 요소보다 더 중요시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내었다.

3.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태동

3.1. 시대적 배경

19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후기 구조주의등의 영향으로 도구화된 이성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고, 이성에 대한 비판은 기존 학문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사상에 대한 의심과 해체로 이어졌다. 동시에 이성과 합리성, 서양의 전통적 가치관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비주류 학문과 그 제반 영역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68운동은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이후의 사회에는 큰 영향을 주었다. 권위와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과 다양한 소수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져나갔다. 이러한 사상과 시대적 인식은 다원주의(pluralism)라는 형태로 꽃피게 되어 현대까지도 서양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예술, 산업 제품, 건축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기존과는 색다른 다양한 시도가 태동하여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산업적으로는 포디즘(Fordism) 또한 여러 문제에 당면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포스트포디즘(Post Fordism)이 대두되었다. 포스트포디즘은 생산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분업의 최소화, 폭넓은 자율성과 다숙련화, 그룹 혹은 팀단위의 작업등을 통하여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추구했다. 이에 산업제품 역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질 여건이 마련되었고, 다채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3.2 사회문화적, 기술경제적 배경

다원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 단일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사상으로 부상했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은 이러한 다원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모던 디자인의 기능성과 보편성을 거부하고, 개별적이고 맥락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포스트모던 운동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건축, 디자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했으며,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찰스 젡크스(Charles Jencks)는 미국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 이론가로, “모더니즘” 건축의 종말을 선언하며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과 디자인의 특징을 다원성, 상징성, 역사적 맥락의 복귀로 정의했다.

196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 단일한 미학이나 규범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는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 여성해방운동(Feminist Movement), 환경운동(Environmental Movement) 등 다양한 사회운동과 맞물려 확산되었다(Harvey, 1989). 이러한 변화는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기존의 획일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모던 디자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기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발전했으나,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넘어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이기도 했다.

4. The Group Memphis & the New Design Movements

그룹 Memphis가 활동하기 이전, 이탈리아에는 스튜디오 알키미아가 있었다.

알키미아는 멘디니의 주도 하에 기능주의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감정과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하며 기능뿐만 아니라 의미, 심미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며 그 무게중심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실험을 진행했다. 알키미아는 환경에 대한 고려와 실용성을 넘어서 예술적 표현을 가진 디자인 등을 주요 철학으로 독창적인 소재와 색상, 기존 작품의 재해석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알키미아는 여러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으나 대중적인 인지도를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러 흥미로운 시도와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 철학은 그룹 Memphis로 이어지게 된다. 그룹 Memphis는 강렬한 시각적 특성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 팝 문화등과 결합하여 알키미아보다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알키미아, Memphis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의 부상은 전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으며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 적정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논의되고 결합되며 사회문화, 기술, 환경과 같은 현대적 문제를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Memphis 그룹은 1970년대 말 모던디자인과 상업주의 디자인에 반발하여 등장하였다. 이들은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모던디자인에서 탈피하고자 기능보다는 형태를 우선시하는 접근방식을

취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했으며, 대담한 색상, 충돌하는 패턴, 과격한 디자인 접근 방식으로 특징이 지어진다.